

해제

들어가며

《연행일기》의 저자 황도순(黃道淳, 해암 황도연)¹은 1808년 출생하여 내의원 의관을 지내기도 하였던 인물로 《부방편람(附方便覽, 1855)》, 《의종손익(醫宗損益, 1868)》, 《의종손익부여(醫宗損益附餘, 1868)》, 《의방활투(醫方活套, 1869)》 등 활용성이 높은 의서를 편찬하였다. 그 중 《방약합편》은 처음 출간된 1885년부터 1988년까지 20여 차례 수정증보판이 나왔고 최근까지도 10여 차례 수정증보판이 출간되었다.² 《방약합편》, 《의종손익》을 비롯한 황도연의 저서에 대한 연구는 그간의 수많은 논문을 통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나 여러 논문에서 주지했던 것처럼 황도연의 삶을 조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창원황씨족보(昌原黃氏族譜)》에도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을 뿐더러 《승정원일기》의 일부 자료와 그의 저작에 담긴 서발문, 그리고 《의종손익》 등 의서에 증보해 놓은 의론을 통해 그의 삶의 조각들을 맞추어보는 정도였다. 황도순 《연행일기》는 그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연행 기록이자 장서(藏書)하고 있던 수택본이라는 점, 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황도순의 친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의사학이나 서지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 《연행일기》 소장처 및 서지사항

황도순의 《연행일기》는 일본 동양문고 자료검색 서비스에서 '朝鮮憲宗十五(1849년) 朝鮮黃惠翁³ 《燕行日記》(청구기호 VII-2-291-0)'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는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동양

문고의 서적 원문이미지 일부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저자미상의 《연행일기》는 고서-일기류로 분류되어 제공 중이다.⁴ 본 《연행일기》는 단권 62장(張)의 서적으로 크기는 세로 23.5cm, 가로 16.5cm이며 상태는 아주 양호한 편이다.



[그림1] 《연행일기》 원문⁵

KRpia에서도 조선시대 사신들의 연행록을 영인하여 출간한 《연행록총간(燕行錄叢刊)》을 온라인에 서비스하고 있으며 1849년에 쓰여진 연행일기는 이계조의 《연행일기》와 저자미상의 《연행일기》 2건⁶이 있다. 그 중 저자미상의 《연행일기》는 서지사항과 서체가 동양문고본과 같고 '燕行日記序' 아래 부분이 헤지면서 생긴 얼룩의 모양이 서로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판본이다. 그러므로 현재는 동양문고에 소장된 것이 유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문고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의 서지사항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 소장처 : 日本 東洋文庫⁷
- 청구기호 : VII-2-291-0
- 자료명 : 燕行日記
- 출판사항 : 朝鮮哲宗一(道光二十九年)(1849년)
- 형태서지 : 1冊(62張) : 無界, 10行23字 註雙行 ; 23.5x16.5 cm
- 주기사항 : 序: [己酉(1849)]崔日奎序
- 판종 : 필사본
- 저자 : 黃惠翁
- 장정(裝訂) : 四針眼
- 卷末: 正使 朴晦壽 副使 李根友[等], 己酉七月十七日燕行往還路程記

2. 《연행일기》 간행 배경

1849년(己酉) 6월 6일 헌종이 승하하자 영묘조(英廟朝, 영조대왕)의 남은 유일한 혈맥인 철종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철종은 정조의 종손이자 순조의 종질이며 헌종에게는 재종숙으로 당시 나이가 19세였다. 6월 9일 강화에서 철종이 탄 어가가 도착하자 바로 즉위하였다. 6월 11일은 초상 후 처음 상복을 입는 성복(成服)하는 날로 전례에 따라 '고부청시겸승습주청사(告訃請諡兼承襲奏請使)' 즉, 전왕이었던 헌종의 시호(諡號)와 사왕(嗣王)인 철종의 승습(承襲)을 아울러 청하기 위해 사신을 차출하였는데 이번 사행할 사신을 판부사 권돈인(權敦仁), 좌의정 김도희(金道喜), 판부사 박회수(朴晦壽) 중 박회수를 정사(正使)로 낙점하였다. 이어 부사(副使)로 이근우(李根友)를, 서장관(書狀官)으로 심돈영(沈敦永)을 낙점하였다. 한 달여간 사행을 같이 갈 사람을 차출하고 공문서와 마른 식량을 준비하며 방물(方物)의 품결을 살펴보는 등의 일을 진행하였다. 7월 17일 박회수, 이근우, 심돈영 세 사신이 입시하니 철종이 세 사신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먼 길을 무사히 다녀오기를 위로하였다.⁸ 그즈음 7월 4일 사과(司果) 황혜웅(黃惠翁)도 특별히 은혜를 입어 고부청시겸승습주청사(告訃請諡兼承襲奏請使)로서 사행을 가는 박회수를 따라 태의(太醫)로서 교지를 받았다.⁹ 이렇게 박회수, 심돈영을 비롯한 일행이 7월 17일 연경으로 출발하였다. 1849년 7월 고부청시겸승습(告訃請諡兼承襲)을 목적으로 사행을 다녀오면서 쓰여진 연행 기록은 심돈영(沈敦永)의 《연행록(燕行錄)》¹⁰과 황혜웅(黃惠翁)의 《연행일기(燕行日記)》¹¹가 현재 남아있다.

3. 《연행일기》의 구성 및 내용

《연행일기》는 따로 목록은 없지만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문과 연행일기(1849년 8월 7일-10월 16일)가 있고 그 뒤에 부록처럼 태학(太學), 노구교(蘆溝橋), 풍속(風俗), 소산(所産), 연대팔경(燕臺八景)에 대한 글이 실려 있다. 다음으로

는 일행목록을 간략하게 써두었고 끝으로 노정기(1849년 8월7일-12월1일)를 첨부하였다. 황도순의 《연행일기》는 노정기의 마지막 기록인 12월 1일 40리를 걸어 한양에 도착하면서 끝이 난다.

1) 서문

서문을 써준 최일규(崔日奎)는 어떤 인물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서문에 기록된 바 '경술년(1850년) 1월 함께 숙직하였던 사이'¹²라는 것을 단서로 찾아본 결과 희경(義卿) 최일규(崔日奎)로 추정된다. 희경(義卿) 최일규(崔日奎)는 황도순이 동참(同參)으로 임명(1847년)¹³ 되었던 것보다 먼저 내침의(內鍼醫)와 부사용(副司勇)을 지냈고 1843년 침의(鍼醫)를 지냈던 인물로 함께 내의원에서 숙직을 했었을 가능성이 크다.¹⁴ 다음은 최일규가 쓴 서문의 일부이다.

기유년(1849년) 7월 상공(相公) 박회수가 전왕이었던 헌종의 시호를 청하고 겸하여 사왕(嗣王)인 철종의 승습(承襲)¹⁵을 주청하는 일로 연경에 가게 되었다. 이 때 동료인 사과(司果) 황혜옹(黃惠翁)도 특별히 태의(太醫)로서 천은을 입어 칙사의 말을 타고 꽃이 뒤덮인 평원과 진펄을 부지런히 달려[驛馬華蓋, 原隰駢馳]¹⁶ 그 해 12월 《시경》의 '우설분분(雨雪紛紛)'¹⁷장을 읊으며 깃발을 돌려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경술년(1850년) 1월 마침 함께 숙직하게 되었는데 동료 황혜옹이 소매에서 노정기(路程記) 1축을 꺼내어 내게 보여주었다. 내가 평생 한번 가보길 바랐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던지라 놀라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바쁘게 손을 돌려 열람하였다.¹⁸

서문에는 사과(司果)였던 황도순이 상공 박회수를 따라 태의(太醫)로서 교지를 받아 사행을 가게 된 내용과 12월 겨울에 사행에서 돌아온 황도순과 함께 1월에 숙직을 하다가 그의 《연행일기》를 보게 된 사연이 담겨 있다. 최일규는 서문에서 태사공(사마천), 소영빈(蘇穎濱), 벨기에인(南懷仁, 페르비스트) 등 원유(遠遊)하고 돌아온 후에야 안목과 문장이 풍부해질 수 있음을 말하면서 그가 유람한 곳은 장엄하고 기록한 것은 상세하다¹⁹는 평으로 서문을 마쳤다.

2) 연행일기

〈연행일기〉는 1849년 8월 7일 압록강을 건너 날부터 10월 16일 방물(方物)을 납입하기 위해 태화전(太和殿)에 갔을 때까지의 기록을 일기체 형식으로 쓴 글이다. 〈연행일기〉 앞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짧막하게 자서(自序)가 실려 있다.

기유(1849년) 7월 4일, 태의로서 특별히 천은을 입었으니 이는 이는 대신(大臣)을 수행하는 예법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한번 크게 중국을 관람하는 것은 내가 평생 바라던 바였다. 이달 7월 17일에 한양을 떠나면서부터 9월 9일에 비로소 황성에 도달하기까지 지나온 곳과 궁실(宮室)의 장려함과 인물의 풍부함은 실로 책에 다 말할 수 없고, 말로도 다 형용할 수 없다. 압록강을 건너던 날로부터 시작하여 간략하게 그 대강을 실었으며 순서는 다음과 같다.²⁰

〈연행일기〉는 일별로 기록되어 있고 각각 날짜·날씨·지나온 거리·지역과 주요 장소·지역에 얹힌 간략한 고사·장소에 대한 상세한 묘사·그날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소회 등이 기록되어 있다. 황도순은 의주-연경을 오가며 보고를 위해 《연행록》을 쓰는 심돈영과 달리 자신이 겪은 일이나 새로운 사실, 풍속, 소회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적었고 자신보다 58년 앞서 연경으로 사행을 다녀온 김정중(金正中)의 《연행록》²¹을 참고하여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기도 하였다.²² 건축물에 얹힌 고사나 장소에 대한 묘사, 풍속 등 보편적인 사실 위주로 발췌하였고 시(詩)나 문학적 감상 등이 기록된 부분은 일부러 배제하기도 하였다. 의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책문(柵門)에 들어가기 전 우연히 들렀던 회천(滙川)에서 후사(後嗣)를 구하는 왕(王)씨 부부에게 가미팔미원(加味八味元)을 처방하고 더불어 지황원(地黃元)을 더하여 쓰도록 하였던 일이나 정양문(正陽門)의 서점에서 《본초강목》·《경약전서》·《수세보원》을 은 3냥에 거래하였다는 내용, 의원(醫員) 김상희(金相羲)와 온돌방을 같이 쓴 내용 정도이다.

3) 부록

〈연행일기〉뒤에는 황도순이 연행 여정중 관심이 있었던 〈태학(太學)〉, 〈노구교(蘆溝橋)〉, 〈풍속(風俗)〉, 〈소산(所産)〉, 〈연대팔경(燕臺八景)〉에 소재목을 달아 한 단락씩 내용을 써 내려간 글이 있다. 특히 〈풍속〉의 내용을 많이 기록하였는데 청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습관을 언급하거나 지역민의 인간성에 대해 지적한 부분도 있다. 조선 인삼을 언급한 부분이나 촌점가 식사법, 술에 대한 감상, 과일을 잘 보관하는 방법 등 청나라의 풍속에 대한 소회도 간간히 보인다.

4) 일행 목록

황도순은 심돈영이 《연행록·일행총록》에 30여명이 되는 일행의 직제와 이름을 자세히 기록한 것과 달리 자신과 가까운 인물 위주로 이름을 적었다. 먼저 박회수, 이근우, 심돈영, 박제송, 변곤, 이운경 등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적고 자신이 속해있는 무리였던 역관훈상당상(譯官訓上堂上) 진응환(秦應煥) 이하 사자관(寫字官), 화원(畫員), 의원(醫員) 김상희(金相羲) 등 22명의 이름만 적어두었다. 황도순의 《연행일기》가 보고를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5) 노정기(路程記)

황도순이 〈연행일기〉에 기록한 일록은 8월 7일 압록강을 건넌 날부터 10월 16일까지이지만 〈연행왕환노정기(燕行往還路程記)〉에는 7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여정을 간략하게나마 적어 두었다. 날짜·지역명·주요 장소·이동하는데 걸린 거리·날씨를 적고 일별로 그 장소에서 머물러 잤는지[宿所] 아니면 점심을 먹었는지[中火] 등을 소략하게 기록하였다. 특별히 속명(俗名)이 있거나 예사롭지 않은 날씨, 세부적인 장소 등이 있는 경우는 세주로 내용을 간단히 기록해 두었다. 연행왕환노정기(燕行往還路程記)에서 12월 1일 40리를 걸어 서울에 도착한 것을 끝으로 《연행일기》의 집필도 끝이 난다.

마치며

1849년 저술된 《연행일기》는 황도순의 첫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 《부방편람》²³보다 6년 앞서 저술한 것으로 연행(燕行) 중의 기록을 일기체 형식으로 적은 것이다. 의학에 관련된 내용은 많지 않지만 서적의 기록을 통해 그가 청나라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졌고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으며 기록에 담긴 일상에서의 모습, 여정 중에 기록한 소회들, 글을 서술하는 필치나 방식 등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황도순의 또 다른 의서가 발견되었더라도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지만 사료가 많지 않은 황도순의 인물 연구에서 일기체 형식의 이 연행 기록은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특히 일본 동양문고 소장의 《연행일기》는 이전에 발표한 논문²⁴에서 장서인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방약합편》, 《의종손익》 등을 집필했던 해암 황도순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연행 기록이자 소장했었던 수택본(手澤本)이라는 점, 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황도순의 친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암 황도순 수택본(手澤本) 《연행일기》의 발굴은 의사학(醫史學)적으로나 서지학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1. 《연행일기》의 저자 황도순(黃道淳, 해암 황도연) : 1849년 간행된 황혜옹의 《연행일기》가 황도순의 저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필자가 지난 10월에 발표했던 다음 논고를 통하여 밝혀낸 바 있다. [↪](#)

• 구현희. 〈황도순 수택본 연행일기 발굴과 의의〉. 한국의사학회지. 2018;2(31):24

2. 《방약합편》은-출간되었다. : 이진철. 〈《醫宗損益》을 통해 살펴본 황도연의 의학사상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 2017:1 참조 [↪](#)

3. 朝鮮黃惠翁 : 동양문고에는 저자표기가 ‘朝鮮黃惠翁’으로 되어 있지만 朝鮮黃惠翁의 오기인 듯하다. [↪](#)

4. 《연행일기》고려대학교/해외한국학자료센터 2018.10.15. [↩](#)
5. 제공 이미지 : 동양문고 소장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제공 이미지.
[↩](#)
6. 현재 KPpia에서 황도순의 《연행일기》를 서비스 중이나 1849년에 쓴 이계조의 《연행일기》와 저자미상의 《연행일기》(황해웅 저)의 서지사항이 서로 바뀌어 서비스되고 있어 오류 수정이 필요하다. [황도순. 연행일기 KPpia\(2018.10.15.\)](#) [↩](#)
7. [日本 東洋文庫DB](#) [↩](#)
8. 간행배경은 심돈영 《燕行錄》의 〈燕行日記〉의 일별 기록을 토대로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심돈영 저. 김상일 역. 《燕行錄·燕行日記》. 서울:만사학술연구원(晩沙學術研究員). 2005:169-185 [↩](#)
9. "己酉七月朴相公以請諡兼承襲事將赴燕京, 是時同僚黃司果惠翁, 亦以太醫特蒙天恩" 황도순. 《연행일기》. 1849 [↩](#)
10. 심돈영. 《연행록》. 1849. (심명구(沈明求) 소장) [↩](#)
11. 황도순. 《연행일기》. 1849. (일본 동양문고 소장) [↩](#)
12. "越庚戌元月適同爲僞直, 而黃僚袖一軸路程記來示余." 황도순. 《연행일기·서문》. 1849. [↩](#)
13. "慶州 : 26世 / 和淑公派 (參判公派), 內鍼 崔遂燁 獨子《姓源錄 續編》 1838.03.20. 內鍼醫差下. 任 副司勇《承政院日記》 1843.10.08. (憲宗9) 鍼醫《日省錄》" 박훈평 편. 《조선시대 의관 총목록》.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8:602-603 [↩](#)
14. "1838.03.20. 內鍼醫差下. 任 副司勇《承政院日記》, 1843.10.08. (憲宗9) 鍼醫《日省錄》" 박훈평 편. 《조선시대 의관 총목록》.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8:528 [↩](#)

15. 승습(承襲): 헌종을 이어 철종이 왕위를 잇도록 허락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 ↩

16. 驛馬華盖原隰駢駢: 《시경》 소아 황황자화(皇皇者華)에, "화려한 온갖 꽃들은 저 언덕 진펄에 피어 있고, 부지런히 달리는 사신은 행여 사명 못다 할까 걱정일세.[皇皇者華, 于彼原隰, 駢駢征夫, 每懷靡及]" 한 데서 온 말로, 곧 칙사를 의미한다. "原隰駢駢" 한국고전번역원/한국고전종합DB 주석(2018.10.15.) ↩

17. 雨雪紛紛: 《시경》 <채미(采薇)>에 "옛날에 내가 길을 떠날 때에는, 푸른 버들가지가 휘휘 늘어졌는데, 지금 내가 돌아올 때에는 함박눈이 펄펄 내리네.〔昔我往矣 楊柳依依 今我來思 雨雪霏霏〕"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변방에서 오래 수자리 살다가 고향에 돌아오는 병사의 심경을 읊은 시이다. "雨雪霏霏" 한국고전번역원/한국고전종합DB 주석(2018.10.15.) ↩

18. "己酉七月朴相公, 以請諡兼承襲事將赴燕京, 是時同僚黃司果惠翁, 亦以太醫特蒙天恩, 驛馬華盖原隰駢駢, 是歲臘月咏雨雪紛紛之章, 而返旆亦竣事而來也. 越庚戌元月適同爲僦直, 而黃僚袖一軸路程記來示余, 余以平生願一見不得之志, 蹶然起坐忙手披覽." 황도순. 《연행일기·서문》 ↩

19. "子之遊則壯矣, 子之記則詳矣." 황도순. 《연행일기·서문》. 1849 ↩

20. "己酉七月初四日, 以太醫特蒙_天恩, 是隨行大臣之禮, 而亦余之所平生願一大觀者也. 是月十七日, 自京城離發, 至九月初九日, 始到皇城, 其所經歷處, 宮室之壯麗, 人物之繁庶, 實書不盡言, 言不窮形. 始自渡江日, 略陳其槩, 序次如左." 황도순. 《연행일기·연행일기》. 1849 ↩

21. 金正中(1791) 저. 정연탁 역. "燕行錄". 한국고전번역원/한국고전종합DB(2018.10.15.) ↩

22. "17세기 중엽 이후(청 건국후) 서울-연경으로 가는 왕복 여행 노정(路程)은 어느 정도 고정적인 것이었으므로 뒤에 간 사람들은 종종 이전에 사행을 다녀

온 사람들의 여행기록을 미리 읽거나 사행 도중에 상고하거나 열람의 자료로 삼기도 하였다." 장백위. 〈여행록(燕行錄)' 및 관련 문헌의 '진실성(眞實性)' 문제 초탐(初探)〉. 大東文化研究. 2017;97 [↩](#)

²³. 황도순. 《부방편람》 14권. 1855 [↩](#)

²⁴. 구현희. 〈황도순 수택본 여행일기 발굴과 의의〉. 한국의사학회지. 2018;2(31):24 [↩](#)

* 작성자 : 구현희

본 해제는 지난 논고로 작성하였던 "구현희, 〈황도순 수택본 여행일기 발굴과 의의〉, 한국의사학회지, 2018;2(31):24"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